

社 說

포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는 포천시 동교동에 자리잡고 있다. 어떤 이유로 포천시 동교동에 포천중문의과대학교가 자리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줄기세포 등 생명과학시대를 선도하는 포천중문의과대학교가 포천시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든든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3월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총장실에서 본지 최호열 발행인과 가진 신년대담에서 김병수 총장은 포천중문의과대학교가 포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산하에는 부속기관으로 강남차병원과 구미차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미국 LA에 있는 한인병원인 LA할리우드 장로병원(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경영목표는 세계 의료계로 진출하고 세계시장으로 확대와 세계 10대 의과대학교로 도약, 전국병원화 경영 현대화 및 과학화 등이다.

의학 비전은 국제 불임 및 생식의학의 메카, 국내 최초의 노벨의학상 수상자 배출, 세계적 대체의학 연구센터 건립, 세계적인 보건의료기관으로 위상 정립 등이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의료수출로 한국의학사에 기록된 차병원과 컬럼비아 의대가 공동 설립한 뉴욕 CC불임연구소와 차병원 LA불임치료센터를 통해 세계속의 한국 의학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세계 정상 수준에 있는 각종 줄기세포 치료 연구와 미래의학의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체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최초의 대체의학대학원을 설립, 국내 대체의학연구와 진료뿐만 아니라

세계 대체의학의 표준화를 주도하여 한국 미래의학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또 포천중문의과대학교는 미국 유명과대학인 컬럼비아대학, U.C.L.A,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 Southern California 대학, 호주 모나쉬 대학 등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활용, 교환교수제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의 의학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컬럼비아 의대와 공동으로 설립한 뉴욕 C·C 불임치료센터는 포천중문의과대학교와 연계하여 미국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 세계 속의 한국 의학도를 육성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는 강남차병원, 구미차병원, 대구여성차병원, LA불임치료센터, 뉴욕 CC 불임연구소, LA할리우드 장로병원, LA불임연구소, 차바이오메디컬센터, 검진센터스포츠 여성의학연구소, 기초의학 연구소, 세포유전치료연구소, 차병원제대헬스케어, 분당차병원, 분당차환방병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교수들이 포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무료검진과 IMS통증치료를 해 줌으로써 연인원 700여명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또 포천구월초를 약용 및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 연구 중에 있다.

올해 연임된 김병수 총장이 포천중문의과대학교가 포천시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연구와 미래의학의 중심으로 중문의과대학교가 포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포천중문의과대학교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영평사격장 구역내 묘지 벌초 8月 한달간 허용

승진훈련장 관광자원화 훈련 장면 공개한다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욱, 이하 특위)는 지난날 31일 영평사격장과 승진훈련장에서 사격장 피해방지대책 촉구 및 탁류방지 1차 공사를 확인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영평사격장(미8군 종합사격장)에서는 특위위원장 이병욱 의원과 최태중 포천시의회 의장을 등 의원 7명과 포천시의회 직원 3명, 포천시 자치지원담당 1명, 포천경찰서 정보보안과 1명과 미8군 작전처 부처장 필백(Milbak), 8군민사참모 피델(Fidel)중령, 2사단 민사참모 캠프(Kamp)소령, 경기도, 국방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평사격장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영평면 신정리와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방문은 특위 의원 7명과 8사단장 김영호 소장 등 6명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탁류방지 1차 공사에 대한 8사단장의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실시된 현장방문에서 특위원들은 영평사격장 방문에 관해 "미 8군측의 답변이 유보적인 미군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쳐 아쉬웠다"며 반면 "이번 간담회는 훈련장이 존재한 지난 5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주민의 고충이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의미를 두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내용이다.

영평사격장의 질문과 답변내용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된 영평사격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포천시의회측의 요구사항과 미군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포사격에 따른 소음 저감 대책을 밝히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훈련장 곳곳에 소음을 120일동안 정밀 측정하여 소음이 심한 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운산리 마을에 인접해 있는 사격장 내 폭발음 교육장은 2km 후방으로 이동했으며 오거리에 있는 사격장(훈련장 밖에 있는 방사지역) 이전을 위하여 8개의 후보지를 이틀 불착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이들 후보지에 대한 검토 작업 진행중이다.

▶산사태가 우려되니 훈련장 펜스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최소화하라.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배수로 설치가 필요한 곳만 산림훼손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설치하고 있다.

▶사격장 내 성묘 이외에 별도

로 벌초를 할 수 있도록 출입 허용하라

▶현재 미8군에서는 사격장내 성묘객들에게 매년 한식, 추석, 구정(3회)에 출입을 허용했던 것을 올 부터는 8월 1개월간은 출입 신청시 벌초를 위해 출입을 허용토록 하겠다.

▶헬기 사격 훈련 시에 저공비행에 따라 발생하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밝히라.

▶지금까지 헬기의 사격을 위한 공중대기 장소 및 비행 선로를 3번이나 바꾸었으며 앞으로는 지역발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민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피해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비행 선로 및 대기 장소를 변경해 갈 것이다.

▶사격 훈련시 우라늄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

▶미 국방성과 미 육군성 지침에 따라 한국훈련장에서의 우라늄탄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대책을 강구하라.

▶영평사격장내에 현재 2개의 소방 중대를 배치했으며 본 2개

중대로 진화가 안될 경우 평택의 미군기지와 인근 한국군이 헬기나 신속히 진화작업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환경(폐수, 기름유출 등) 피해 방지 대책 강구하고 포천시 관계공무원이 영평사격장 내에서 샘플링 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해 주기 바란다.

▶미8군은 미국환경청(EPA)기준에 의해 오세수 및 유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영평사격장내 환경조사를 위한 샘플링 채취는 지휘부에 보고한 후 수락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간 사격 훈련을 제한하여 줄 용의는(동절기 10시, 하절기 12시까지)?

▶야간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며 미국 본토에서 영평사격장의 7-8배되는 공간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부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격장을 집중 관리(운영)하는 관계로 야간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이 미8사단의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승진훈련장의 질문과 답변내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승진훈련장 방문한 특위 의원들의 질문과 군 당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8사단장은 2007년까지 기동포장을 완료해서 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탱크가 지나면서 시멘트를 갈아내면 시멘트 물이 흘러들어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급경사 회차시 땅의 파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1단계 공사를 완료해 2006년까지 지킴부 후 포장은 2007년 2단계로 추진하고 탁류방지가 안될시 3단계로 물을 막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평사격장도 매년 해석을 보강하고 있는 거와 같이 승진훈련장도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이며 4월중 1주일간을 해빙기 보수공사를 대비하여 해석 14,000㎡를 확보했다.

경기도 지원예산중 정산금액 3천만원을 들여 철사지를 보완하여 최종 방류하면 좋은 효과가 기대되며 승진훈련장 탁류보강공사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최고의

훈련장으로 만들고 공민화계획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승진훈련장의 경우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훈련 장면을 공개할 수도 있음(1주일에 1번 정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

한편, 이병욱 특위원장의 기동포장 1차공사 완료후 문제점이 있으면 포장에 쓸 것을 요구하자 8사단장은 탁류제거를 위해서 산정호수 준설하고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 정화 활동을 하고 환경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기간중 수로부터 산정호수 초입까지 토사가 쌓여있는 것을 제거할 예정이다.

김종용 포천시의회회원이 해석으로 포장한 기동포장에서 잠바때 분쇄된 해석물이 흘러나가 산정호수로 들어 갈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8사단장은 다짐을 잘해서 스펀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새인물/ 황용선 포천시 부시장



황용선 포천시 부시장

1949년 12월 15일 경기도 파주 출신의 황용선 포천시 부시장은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지난 1973년 9월 20일 서울군 광명출

장소 지방행정서기보로 공직에 입문했다.

의왕시 시민계장, 회계과장, 경기도청 공단계장, 경리계장, 무역진흥과장, 회계과장, 총무과장 등을 거쳐 지난 2003년 2월 14일부터 2005년 2월 10일까지 가평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한편, 가족사항으로는 부인 한상화 여사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알고 있는 사실 기사로 바꿔 함께 나뉘요”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 제1차 기자교육

포천관내 초,중,고 및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된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단장 양근원)은 지난 1일 포천신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기자교육을 갖고 학생명예기자로 활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30여명의 학생명예기자가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 양근원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알고 있는 사실들을 기사로 바꿀 수 있도록 포천신문이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호열 발행인은 격려사를 통해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명예기자들은 자신의 좌우명, 장래

희망, 학생명예기자로서의 포부 등을 밝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기자교육에 나선 김영복 편집국장장은 ▶학생명예기자가 해야 할 일 ▶기사가 필요한 소재 파악 ▶기사작성 요령 ▶취재요령 등의 교육을 통해 학생명예기자로서의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혜배 기자가 어린학생들을 이끌고 교육과 학생명예기자들이 직접 기사작성 후 그에 대한 첨삭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보도자료를 기사로 바꾸는 교육에서 신세인(13·가산초) 학생명예기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복으로 가정의 온도를 UP시켜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단장 양근원)은 지난 1일 포천신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기자교육을 갖고 학생명예기자로 활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교통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 한 목소리

포천시와 3개 대학 學官교류협력 간담회에서



지난 3일 포천시청 접견실에서 대진대·중문대·경북대학-포천시간의 학관교류 협력 간담회에서 3개대학 총·학장들은 포천시 진위를 위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포천시가 가장 시급해야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역시 ‘교통’ 문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3일 오전 11시 포천시청 접견실에서 개최된 학관교류협력 대진대·중문의과대·경북대학-포천시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박운국 포천시장과 최태중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흥기형 대진대학교 총장, 김병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총장, 이보령 경북대학장과 한인희 대진대학교 대외협력실장, 홍을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사무처장, 김경복 경북대학 학생지원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포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역시 교통문제라

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흥기형 대진대학교 총장은 어렵게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대진대학교학재교육원이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우수한 인재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통문제 해결에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김병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총장 또한 포천중문의과대학 진입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것과 송도 신항을포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사무처장, 김경복 경북대학 학생지원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포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역시 교통문제라

포천시 인사

- 8급 전보 ▶장천원 건축과 09급 신규 ▶관내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신승미 세정과 ▶남미영 민원과 ▶김형미 사회복지과 ▶최은주 환경보호과 ▶임근태 산림복지과 ▶김경일 건설과 ▶정명규 도시과 ▶이미선 건축과 ▶송민수 포천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 ▶남지연 포천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여미선 소홀음 ▶이기승 군내면 ▶류미애 가산면 ▶이현주 신북면 ▶문지현 참수면 ▶홍숙영 일평면 ▶홍숙진 이평면 ▶이윤호 영북면 ▶박지선 관인면 ▶이일희 포천면 ▶안정민 선단동 ▶김

- 미자 의회사무국 이상 2월 1일자 ▶지방농촌진흥조사 ▶심진섭 포천지소장 ▶박기욱 식량작물담당(승진) ▶이경훈 지도기획담당 ▶김승한 내촌지소장 ▶조종목 일동지소장 ▶홍길표 화현지소장 ▶이동선 소홀지소장 ▶권운국 참수지소장 ▶신주식 이동지소장 2월 3일자

경기경찰청 총경인사

- ▶박천화 청문감사담당관 ▶나옥주 2부 생활안전과장 ▶구본걸 2부 수사과장 ▶이연수 2부 형사과장 ▶장 광 4부 생활안전과장 ▶김택기 4

- 부 수사과장 ▶이한기 4부 경비교통과장 ▶이동수 청사경비대장 ▶백승호 수원중부서장 ▶이원재 수원남부서장 ▶박준목 성남남부서장 ▶박운영 부천중부서장 ▶신동근 의정부서장 ▶박종우 고양서장 ▶박종수 일산서장 ▶이영 안산서장 ▶박경민 시흥서장 ▶김우광 용인서장 ▶조철욱 김포서장 ▶이강순 안성서장 ▶김대진 여주서장 ▶황성채 연천서장 ▶윤재국 양주서장 ▶신기태 경무과(교육) ▶이연우 경무과(대기) ▶전광정 경무과(대기) ▶원종호 경무과(대기) ▶배진주 경무과(대기) ▶박용성 경무과(대기) 이상 2월3일자

개성인삼농협 제20대 김교주 조합장 就任

김 조합장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 만들자” 다짐

개성인삼농협은 지난일 오전 10시 30분 어룡동소재 사육 2층 강당에서 제20대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조합원과 각계각층 인사 및 내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박창학 전조합장은 지난 12년간 조합장으로서 개성인삼농협발전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 전 조합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해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개성인삼농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김교주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조합의 노·사가 하나 되어 다시 한번 개성인삼농협이 도약하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하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당부했다.

황성택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성인삼농협의 무한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무한한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지난날 31일에 가진 이사와 3명 개성인사 10명의 신임이사와 2명의 감사가 선출돼 신임조합장과 함께 4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이사 ▶김용두(포천) ▶박남용(소홀, 가산) ▶송철진(신북, 참수, 영중, 영북, 관인) ▶한주석(일동, 이동, 화현) ▶이길호(의정부, 양주) ▶권오인(연천 왕징) ▶윤동환(양평) ▶최병갑(연천 장남) ▶박상기(연천 전곡, 청산) ▶이태희(연천 미산)

▶감사 ▶이중석(연천, 양주) ▶김석하(포천, 의정부)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개성인삼농협은 지난일 오전 10시 30분 어룡동소재 사육 2층 강당에서 제20대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Publica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